



아마존 파괴는 醫學발전 저해

지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온실효과로 인해 국가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소규모 도서국가들이 선진국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온실효과로 인해 南極의 빙산이 녹아 해수면이 높아짐으로써 국토가 바닷물에 잠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카리브海-南태평양-인도양-지중해의 14개 도서국가들은 최근 인도양에 위치한 몰디브의 수도 말레에 모여 대채회의를 갖고 『엄청난 화석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온실효과를 일으킨 장본인인 선진국들은 온실효과를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방지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지거했다.

이번 회의에서 英聯邦사무총장 슈리다트 람팔卿은 『전세계의 조그마한 도서국가들은 온실효과에 거의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엄청난 대가를 치를 운명에 놓여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들 국가의 존립은 전세계 선진국들의 책임의식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개발로 인해 고귀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많

은 약초가 멸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난 88년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美國의 게르투르드 엘리언 박사가 경고했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癌학술대회」에 참석한 엘리언박사는 『현대의학은 야생약초의 신비로운 효과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단계까지 발달, 그같은 약초를 이용해 아직 인류가 치료할 수 없는 여러질병의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고 밝히고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는 수많은 약초의 멸종을 초래, 다시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극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엘리언박사는 『아마존열대우림지역에는 세계 다른 어느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야생 약초들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는 온실효과를 가속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라도 전세계 의학발전을 저해하는 근시안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현재 과학자들은 아마존지역에 약 10만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세상에 알려진 것